

탄소 이용 개미산 제조기술 개발

남부발전, 캐나다 Mantra와 개발협약 ... CO₂ 전기분해 통해 생산

남부발전(대표 남호기)이 탄소를 이용해 개미산(Formic Acid) 제조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.

남부발전은 8월10일 캐나다의 Mantra, 국내 환경전문기업인 KC코트렐과 협약을 맺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(CO₂)를 전기분해해 개미산을 제조하는 ERC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.

개미산은 개미에서 발견된 천연물질로 방부제와 염색제, 인공감미료 등 유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로 주목받고 있으며 2009년 세계시장 규모는 10억달러에 달했다.

남부발전은 일단 Mantra가 보유하고 있는 ERC 시스템을 하동 화력발전소에 설치하고 1년간 기술 보완을 거친 후 2014년 준공되는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에 하루 200톤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.

남호기 사장은 “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개미산을 만들면 골칫덩어리 이산화탄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이산화탄소 재이용 기술을 발전시킬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8/10>